

# 한국광산업진흥회, 동남아 광통신 시장 진출 '교두보'

### 싱가포르 전시회 참가, 580만달러 수출계약 성과 달성 독일 글로벌 기업과 협약 등 주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1일 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광통신기업 10개사와 함께 동남아시아 거점국인 싱가포르 지역 공략을 위해 지난 7-9일 싱가포르 광통신 전시회(CommunicASIA 2023)에 공동관을 구성·운영한 결과, 총 580만달러(한화 약 75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광통신 전시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광통신 및 통신 기술 전시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광통신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10억달러로 향후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싱가포르는 물론 동남아시아의 향후 광통신 기술 및 시장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장조립형 광커넥터, 광단면 자동검사 시스템 및 가정용 공기청정기 등이 해외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에이비추업은 가정용 공기청정기 약 500만달러, ㈜솔텍은 광커넥터 및 드롭케이블 유지 보수 솔루션 약 30만달러, 탈렌티스㈜는 배선용 광케이블 약 5만달러, ㈜고려오토론은 45만달러의 광커넥트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밖에도 진흥회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광통신, 광 헬스케어, 배터리, AI, 모빌리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최근 싱가포르 광통신 전시회(CommunicASIA 2023)에서 총 580만달러(한화 약 75억원)의 수출계약 체결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제결하고 국내 광융합 제품의 우수성도 홍보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굴한 120여명의 유망 바이어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11월에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전략적으로 초청, 수출 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철동 진흥회 회장은 "그동안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에는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융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로데 슈바르츠사 및 싱가포르 전자제품 유통사인 DBR시스템사와 업무 협약을



광주지역 11개 산학연협회는 지난 9일 '미래차 특화단지 유치' 지지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 유치 절실"

### 광주산학연협 회장단 '미래차 소·부·장' 유치 지지 성명 발표

광주 경제를 견인하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지역 11개 산학연협회는 지난 9일 발표한 광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지지 및 대통령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광주산학연협회 소속 200여 회원을 대표해 11대 대표산업 회장단이 참석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청한 광주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정부에게는 대

통령 공약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광주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 동력이 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됐으나 광주 자동차산업이 지역을 넘어 국가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38.8%와 제조업 종사자의 25.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또 AI, 금융, 가전, 광산업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

는 기반산업으로 지역 제조업 종사자들은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에 지난 4월에 신청한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과 함께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협의하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산학연협의회 회장단은 "내년 기관차 부품 중심의 우리 광주의 부품 기업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미래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며 "실패한다면 기업 존재는 물론 광주지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최희암 前 감독 초청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고려용접부 부회장이자 前연세대 농구감독을 지낸 최희암 부회장을 초청해 '슬기로운 리더의 길'을 주제로 1007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최희암 부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농구감독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한 내용에 대해 전달했다. 최 부회장은 "농구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감독은 골을 넣을 수 없고, 수비를 할 수도 없다"며 "기업을 경영할 때도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CEO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거다. 직원들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독이나 CEO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며 패배와 실패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 사업에서 결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책임을 직원 탓으로 돌린다면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한다. 무시당하는 직원과 대우받는 직원은 다르다"며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생산부서와 구매부서가 싸우고 서로를 탓하는 기업이 많다. 직원 간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기업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임재만기자

## 광주문진원, 선임직 이사·감사 공모

### 비상임 선임직 이사 3명·감사 1명...15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사회 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3년 임기의 비상임 선임직 이사 3명과 2년 임기의 감사 1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사는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정관 등 규정 제 개정 및 폐지,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진흥원 재산상황·결산을 감사하고,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

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모자격은 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이사는 정보문화산업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집 공고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5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북쪽이나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